

제 6 장 자연 기적: 해석적 표현이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1. 주제 : 1 세기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그들이 체험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의 자연 기적을 이용했다.

2. 문제점 : 그렇게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예수의 수많은 가르침과 행함이 기적이라는 언어로 마치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 (Historical event)인것으로 전해져 오게 된다.

3. 논점 :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을 당시 사람들은 예수 체험의 일부로 생각했는가? 즉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았는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도 예수의 삶속에서 체험된 일들을 예언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았는가?

-바울은 최소한 예수의 기적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다.- 바울선생이 죽은 후 30-40 년후에 쓰여진 사도행전에 기적이 아닌 미화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바울선생은 초자연적인 기적이야기에 대한 진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라는 존재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을 가졌던 것 같다.

-기적은 70 년대의 마가와 80 년대 및 90 년대의 기타 복음서들에 처음 등장한다.---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대해 인간의 언어로는 합리적인 설명이 너무 부족하고 부적절하다고 여겨 기적들을 사용하여 그 궁극적 체험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예수가 행했다는 초자연적인 활동 중 자연 기적에 대해 말할 때 예수가 자연의 힘을 능가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역설한다.---유대인들의 종교역사(즉 시편 77:19 의 물위를 걷는 하나님의 묘사,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부터 무제한으로 음식을 제공받는 묘사, 홍해가 갈라지는 묘사,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넉넉하게 음식을 공급받는 묘사 등등) 와 세계관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다. 객관적인 의미에서 사실상 발생한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본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내적 체험을 그들의 종교 전통에 속한 고유 언어로 해석하려고 한 것이다.

4. 결론:

‘기적’에 대한 복음서 저자들의 의도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과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게 (encounter)된 것과 그리고 자연 기적들은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만났다고 믿게된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6. 생각해보기

이책의 저자가 지적했던 자연 기적 (예수가 ‘물’위로 걸어간 것,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한 것, 군중에게 ‘떡을 것(떡)’을 공급한 것,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즉각 시들게 한 것 등)이 오로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것이라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대인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